

2016학년도 수시 논술 모의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

소속고교	고등학교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허자가 질문했다. “공자가 『춘추』를 지으면서 중국을 안으로 삼고, 중국 사방의 오랑캐족인 동이·서융·남만·북적을 밖으로 하였습니다. 무릇 중국과 오랑캐의 구별이 이와 같이 엄격한데, 지금 선생은 오랑캐의 운수가 성한 것을 사람이 부른 것이고 하늘의 때가 가져온 필연이라고 하니 옳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실옹이 대답했다. “하늘은 낡고 땅은 길러주니, 무릇 혈기가 있는 것은 다 같은 사람이다. 여럿 중에 뛰어나 한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자는 모두 임금이며, 문을 여러 겹 만들고 성 바깥에 못을 깊이 파서 강토를 조심하여 지키는 것은 다 같은 국가이다. 은나라 때 머리에 쓰던 관인 장포(章甫)나, 주나라의 갓인 위모(委帽)나, 오랑캐가 몸에 그림을 그리는 문신(文身)이나, 남만에서 이마에 그림을 그리는 조제(彫題)라는 풍속이나 모두 다 같이 자기들의 풍속인 것이다. 하늘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의 구별이 있겠느냐? 그러니 각각 자기 나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기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마찬가지다.”

[나] 메카트니 사절단은 그 세세한 목적을 하나도 성취하지 못했다. 양측의 인식이 너무나도 큰 간극을 보였기 때문이다. 메카트니는 산업화의 혜택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지녔지만, 청나라 황제는 그의 선물을 그저 조공쯤으로만 여겼다. 영국의 특사는 중국이 기술 문명의 진보에서 속절없이 뒤쳐져 있음을 관리들이 깨닫고, 그런 후진성을 면하기 위해 영국과 특별한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중국은 그들을 천자의 특별한 은덕을 바라는 거만하고 무지한 야만족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첫 번째 불협화음은 메카트니 일행이 베이징 북동부의 하계 수도인 열하를 향하고 있을 때 드러났다. 그들은 중국 범선에다 풍성한 선물이며 맛있는 음식들을 가득 싣고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고 있었는데, 깃발에는 ‘중국 황제에게 바칠 조공을 운반하는 영국 대사’라고 적혀 있었다. 베이징에 당도할 즈음 사절단을 책임진 상급 관리에 의해 시작된 협상은 양측의 인식 차이를 한층 더 날카롭게 부각시켰다. 문제가 된 것은 메카트니가 황제에게 ‘고두(叩頭)’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주장대로 한쪽 무릎을 굽히는 영국식 관례에 따라 인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중국 측은 “나라마다 의복의 관습이 다르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토론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황제께서 대중 앞에 남실 때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무릎 꿇기와 엎드리기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해주기 때문에 결국 중국식 의복이 더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 영국 사절단도 존엄하신 황제 폐하를 알현하기 전에 무릎 꿇쇠라든지 양말대님 따위를 훨훨 벗어던지는 편이 한층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메카트니는 이렇게 맞받아쳤다. “제가 고국의 군주에게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경의의 표현을 황제 폐하께 드린다면, 폐하께서도 더욱 흡족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 서구인들은 세계 지도에서 5, 6개 대륙들을 구분하였다.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와 남미, 그리고 유럽이다. 가끔 순진하게도 유럽이 다른 대륙들에 비해 얼마나 작은지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논의, 통계적 분류, 혹은 역사적 비교에서 이러한 구분들은 그것이 마치 자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되풀이 되어 나타난다. 유럽의 ‘세계 지도집’들을 보면 유럽 각 국가들의 지도가 자세하게 실려 있고, 세계의 나머지 부분들은 끝 부분의 몇 쪽에 몰려 있다. 게다가 세계 전체를 보여줄 목적으로 선택되는 지도조차도 인류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을 강화하는 데 적절한 것이다.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에는 유럽이 상단부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위대한 문화권들보다 훨씬 크게 보인다. 이 주요 문화권들은 대개 북위 40도 이남에 위치하고 유럽의 거의 대부분은 그보다 북쪽에 위치하는데, 메르카토르 투영법은 북위 40도부터 사물의 크기를 크게 과장하기 시작한다.

크기의 비례에 대한 감각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세계 지도에서마저 유럽에는 많은 지명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반면, 훨씬 더 작은 축적으로 그려진 인도나 중국 같은 많은 인구가 사는 중심지에는 몇몇 주요한 지명만 표시된다. 비록 면적과 모양을 훨씬 덜 왜곡시키며 면적을 동일한 비례로 보여주는 투영법들이 개발된 지 오래되었지만 서구인들이 자신에게 그토록 기분 좋은 투영법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일이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항해에만 종사한다는 듯이 메르카토르 지도는 각도가 정확하게 맞으며 이것이 항해자들에게 편리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설명한다. 그리고 지도집이나 벽걸이 지도, 참고서, 신문에서 세계 전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려고 할 때 서구인들의 선입견은 권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충족되는 것이다.

[라] English is increasingly being used as a second language. In several parts of the world, for example, ongoing changes are occurring in the status of English. In many countries where English has been traditionally learned and used as a foreign language, such as Argentina, Denmark, Sweden, and Switzerland, the use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s greatly increasing. As a result, more and more people are us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ot as a foreign language. These countries can thus be regarded as in the process of shifting towards second language status.

Since English is becoming more commonly used as a second language, World Englishes have evolved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 term ‘World Englishes’ refers to the varieties of English that have developed around the world. When English is used as a second language, people usually develop distinct forms of English. The forms tend to be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e kinds of English spoken in the first

language countries. Instead, they reflect local culture and languages used alongside English. The plurality in *Englishes* means that people recognize the existence of distinct varieties of English. People also recognize that to those who use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nglish is now *their* language. They express their own thoughts and feelings in English. The effects of World Englishes are far-reaching. First language speakers may no longer serve as the center of authority as far as English is concerned. Their literature and television may not be the only source of English language culture any more. Local varieties of English and local culture can also offer useful resources regarding English.

[마] 초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낭군께서는 제가 아니시니, 어찌 제가 꽃을 애석하게 여기는 뜻을 아시겠어요? 저 복사꽃, 오얏꽃들이 아름다움을 다두고 버들이 초록빛을 자랑하다가도 가을이 되면 쓸쓸히 떨어지는데 이는 천지의 이치이니 뭐 애석할 게 있겠습니까? 이 꽃의 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고픈 마음이 일게 하지요. 그러나 궁궐에 나면 귀공자와 왕손의 눈길을 받을 것이요, 권세가에 나면 유명하고 벼슬 높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지만 평범한 백성이 사는 마을에 나면 시골 아이, 띠꺼머리 목동에게 꺾이게 되겠지요. 똑같은 아름다운 향으로 어떤 것은 귀한 이의 사랑을 받고 어떤 것은 시골 목동의 사랑을 받으니, 이 어찌 태어난 처지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애석하게 여기는 거지요. 사람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왕이 계신 수도에 가까우면 과거에 합격하여 귀하게 되겠지만 이 어찌 재주와 덕이 더 나아사이겠습니까? 먼 시골에 태어나면 가난하고 천하게 될 터이니 이 어찌 정성이 미치지 못해서이겠습니까? 여자 또한 그러해서 사대부가에 나면 반드시 우아한 숙녀가 되고,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면 그저 그런 부인이 되는 것이랍니다. 어찌 용모와 덕이 부족해서 그렇겠어요? 처지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이 때문에 제가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골 선비인 낭군의 정성을 애석하게 여기고, 또 저의 천함을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꽃도 애석해 할 만하며, 낭군 또한 애석하고 저 또한 애석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애석하게 여길 겨를도 없지만 낭군께서는 스스로를 애석하게 여기시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낭군께서는 스스로 애석하게 여기실 수 없으시니 어쩔 수 없는 제 처지를 갑절로 애석하게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 꽃을 꺾어 올린 것이며, 저의 마음을 호소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릇 봄별의 꽃이 가을이면 시들어 떨어지는 것은 예로부터 그래 온 것이니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바] 내가 나 자신을 규정하려면, 우선 ‘나는 여자다’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자는 결코 어떤 성(性)에 속하는 개인으로서 자신을 규정하며 시작하지는 않는다. 그가 남자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남성’, ‘여성’이라는 용어는 법률 서류와 같이 형식적인 문제에서만 대칭적으로 사용될 뿐이다. 실제로 남성, 여성 두 성의 관계는 결코 양극과 음극 두 개의 전극 관계와 똑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프랑스로 ‘남자(homme)’라는 단어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흔히 쓰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남자가 양성과 중성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자란 오로지 음(陰)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온갖 규제가 주어진다.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의미가 정해지고 그 차이가 구별될 뿐, 여성 자신으로서 생각되지 않는다. 여자는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비본질적인 존재이다. 남자는 주체이며 절대이다. 그러나 여자는 타자이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들은 스스로를 ‘우리들’이라고 부른다. 흑인들도 그렇게 부른다. 그들은 자기들을 주체로 세워 부르주아나 백인들을 ‘타자’로 바꿔 버린다. 하지만 여자들은, 관념적인 시위에 그치는 몇몇 집회를 제외하고는 ‘우리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결코 주체로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들은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켰고 흑인은 아이티에서 혁명을 일으켰으며 인도 차이나 사람들은 인도차이나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나 여자들은 타자와 대결해서 싸울 수 있도록 자신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었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과거나 역사와 종교를 갖고 있지 않고, 프롤레타리아처럼 노동과 이해의 연대성도 갖고 있지 않다.

[사]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이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으로서, 유럽 서양인의 경험 속에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하는 것이다. 동양은 유럽에 단지 인접되어 있다는 점만이 아니라, 유럽의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풍요하며 오래된 식민지였던 토지였고, 유럽의 문명과 언어의 원천이었으며, 유럽 문화의 호적수였고 또 유럽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반복되어 나타난 타자 이미지이기도 했다. 학문적 전통과 관련되어 오리엔탈리즘에는 더욱 넓은 의미가 있다. 곧 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론적이지자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시인, 소설가, 철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식민지 제국의 관료들 포함 한 수많은 저술가들이 동양과 그 주민, 풍습, 정신, 운명 등등에 관한 정교한 이론, 서사시, 소설, 사회적 설명, 정치적 기사를 쓰는 경우 그 출발점으로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기본적인 구분을 수용하여 왔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다루기 위하여, 동양에 관하여 서술하거나, 동양에 관한 견해에 권위를 부여하거나, 동양을 묘사하거나 가르치거나 또는 그곳에 식민지를 세우거나 통치하기 위하여 세운 문명조합적인 제도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방식이다. 오리엔탈리즘 때문에 동양은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아니다. ‘동양’이라고 하는 독특한 존재가 논의될 때, 언제나 피할 수 없이 작동되는 기준이자 모든 관점의 총체망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다. 그래서 유럽 문화는 타자화된 ‘동양’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은폐시키고 소외시킴으로써 ‘서양’이라는 중심주체의 힘과 자기 정체성을 얻었다.

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에 나타난 메카트니 사절단 및 중국 측의 입장과 제시문 [다]에 나타난 서구인의 입장을 각각 비판하시오. [30점]

2 제시문 [라]를 요약하고, 제시문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를 평가하시오. [30점]

3 제시문 [마], [바], [사]에 나타난 ‘중심과 주변’을 인식하는 태도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40점]